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과 향후 금융 정책방향

2011. 12. 22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목 차

1

한국 경제 50년

2

대외 금융·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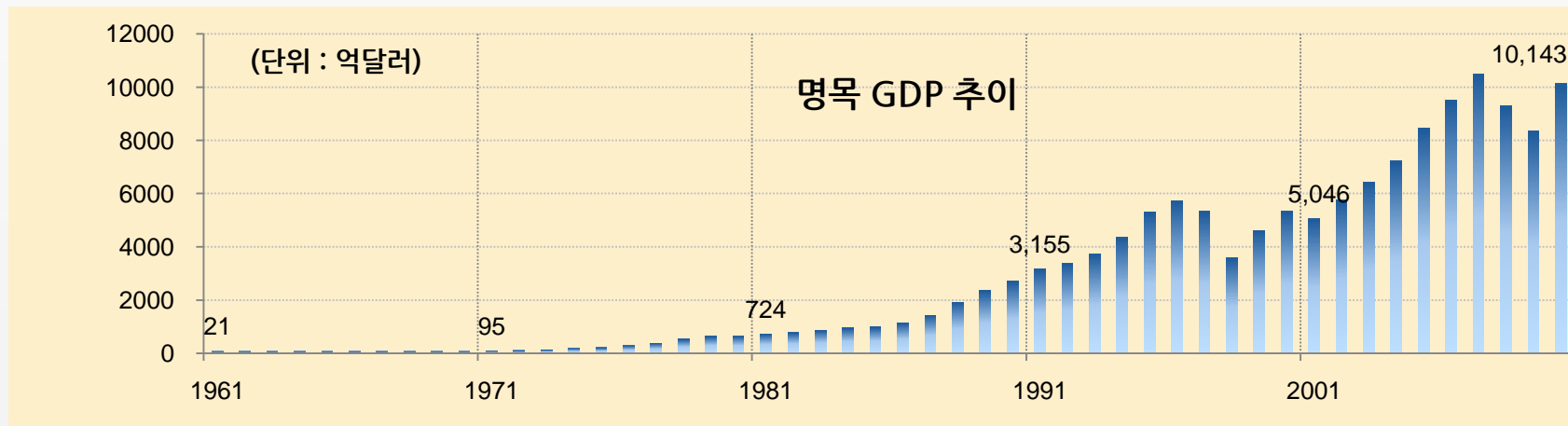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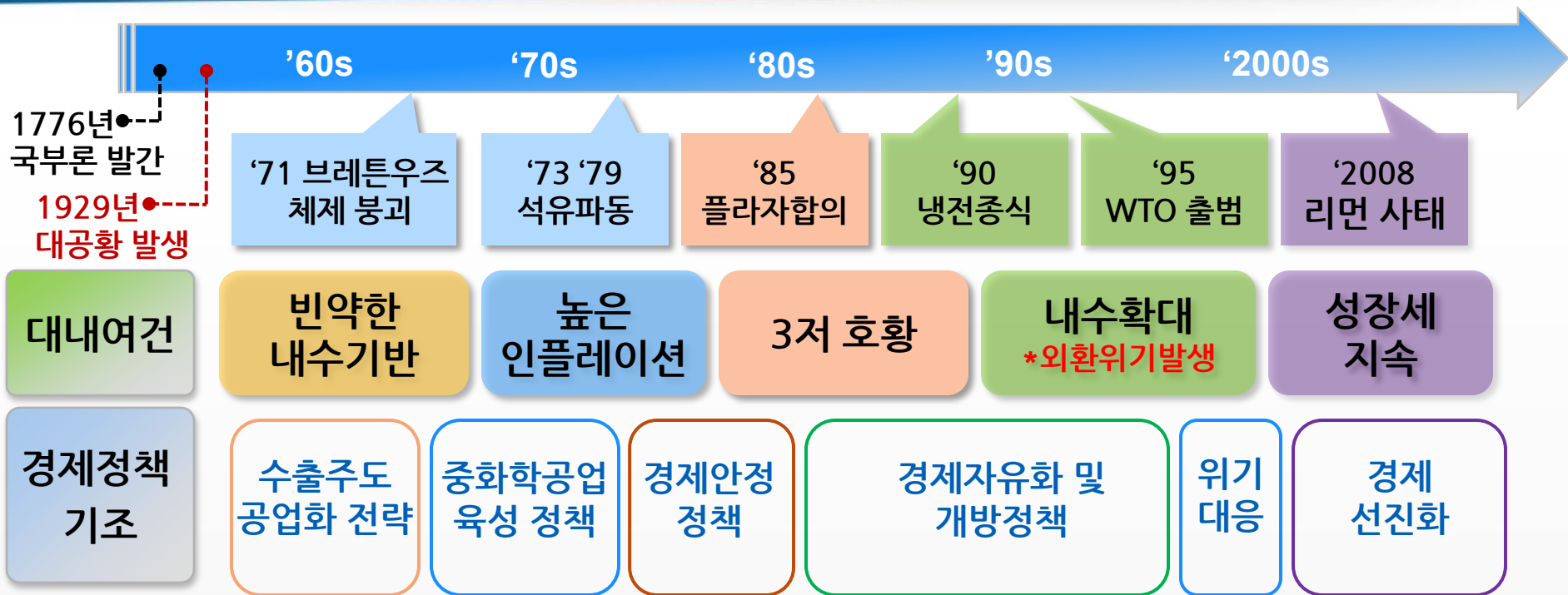
3

대내 금융·경제 여건

4

금융정책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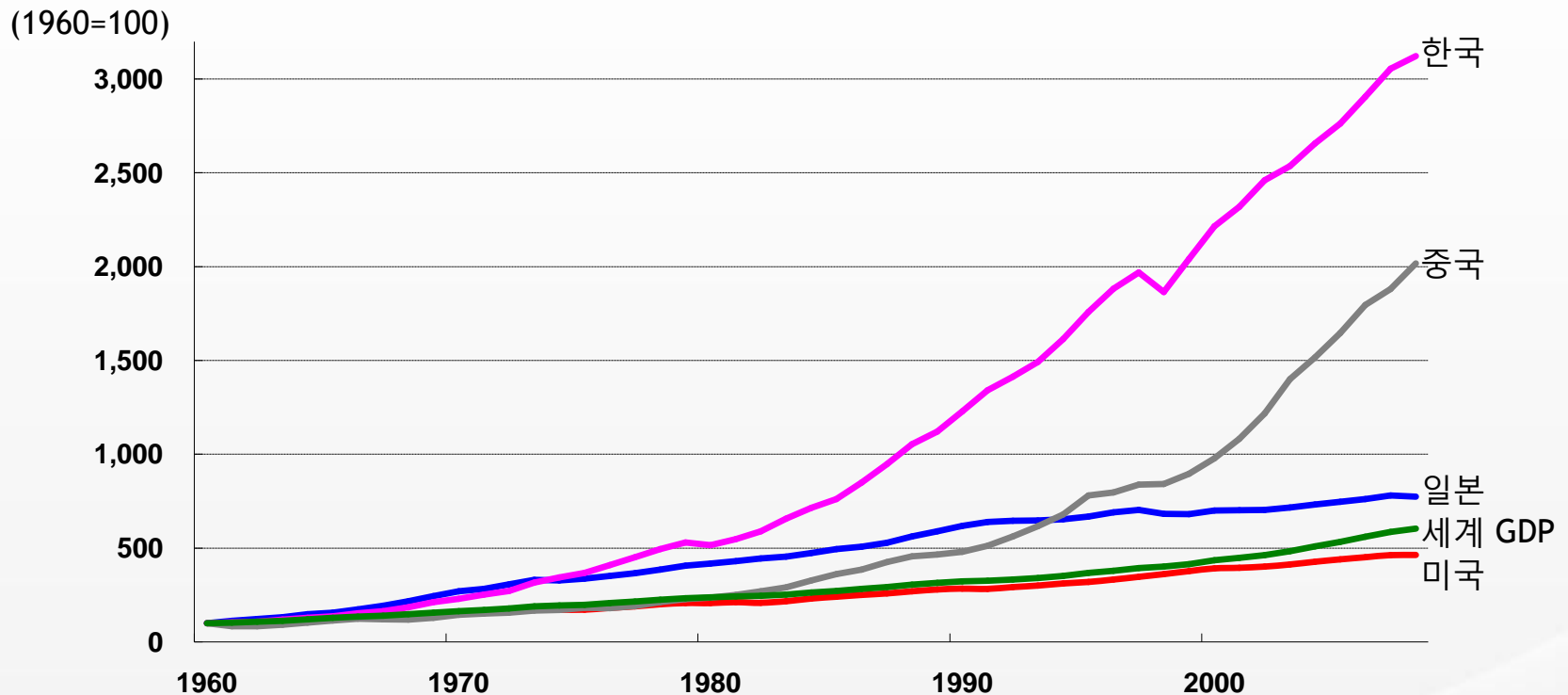
1. 한국 경제 50년



2.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

- 📌 1960년 이후 주요국들 중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시현
- 📌 1960~2008년 동안 한국경제의 실질 GDP는 31배 증가 (세계 GDP 6.0배 증가)

주요국의 실질 GDP 추이 (196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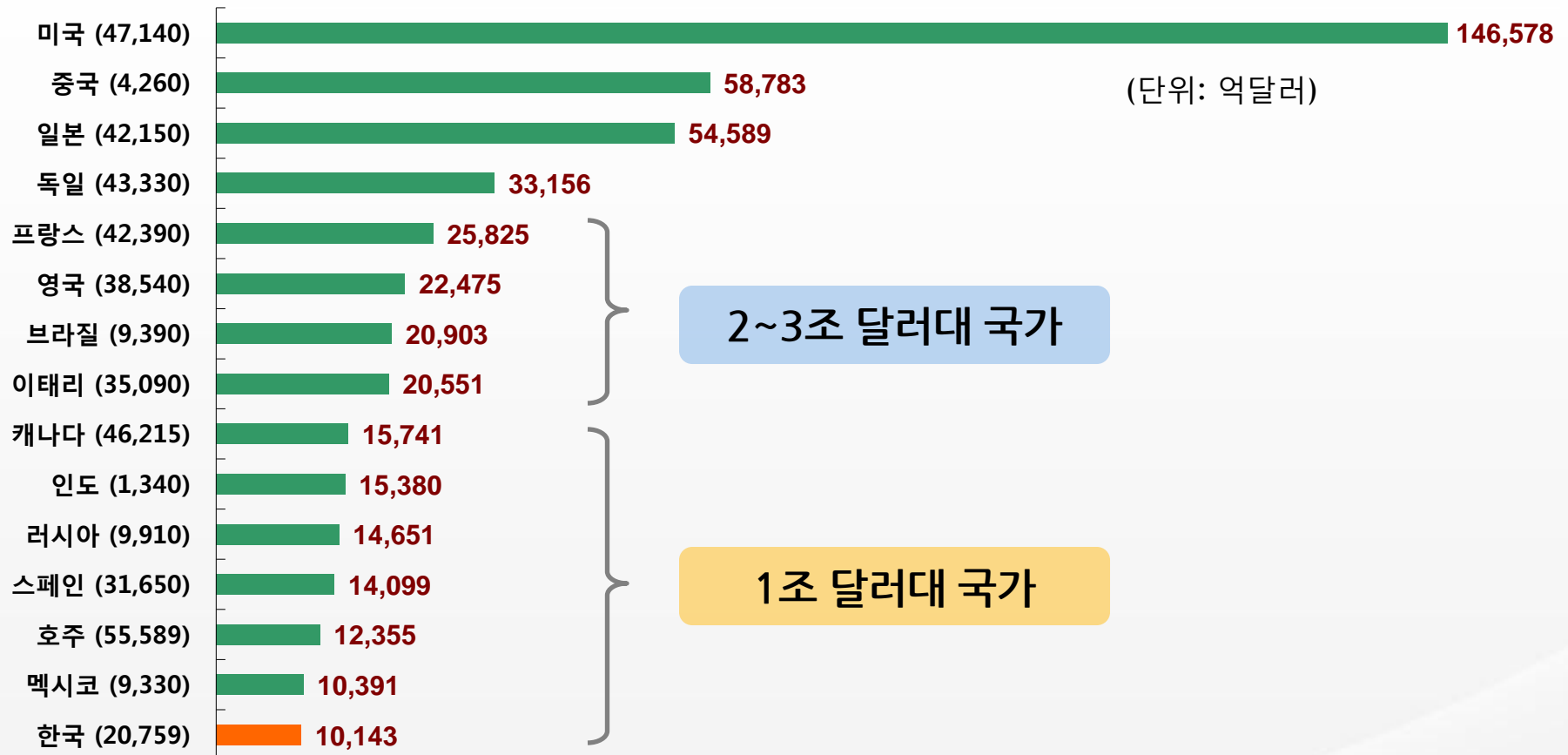


주: 1. 1960년 GDP=100으로 하여 각국 실질 GDP의 추이를 표시
2. Angus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2010)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3. 세계 10위권대 경제국가로 성장

 2010년 기준 한국의 GDP 규모는 10,143억달러로 세계 15위

주요국의 GDP 규모 (2010년)



주: 국가명 뒤의 ()는 1인당 국민총소득. 단, 캐나다, 호주는 1인당 국내총생산(per capita GDP) - World Bank GNI per capita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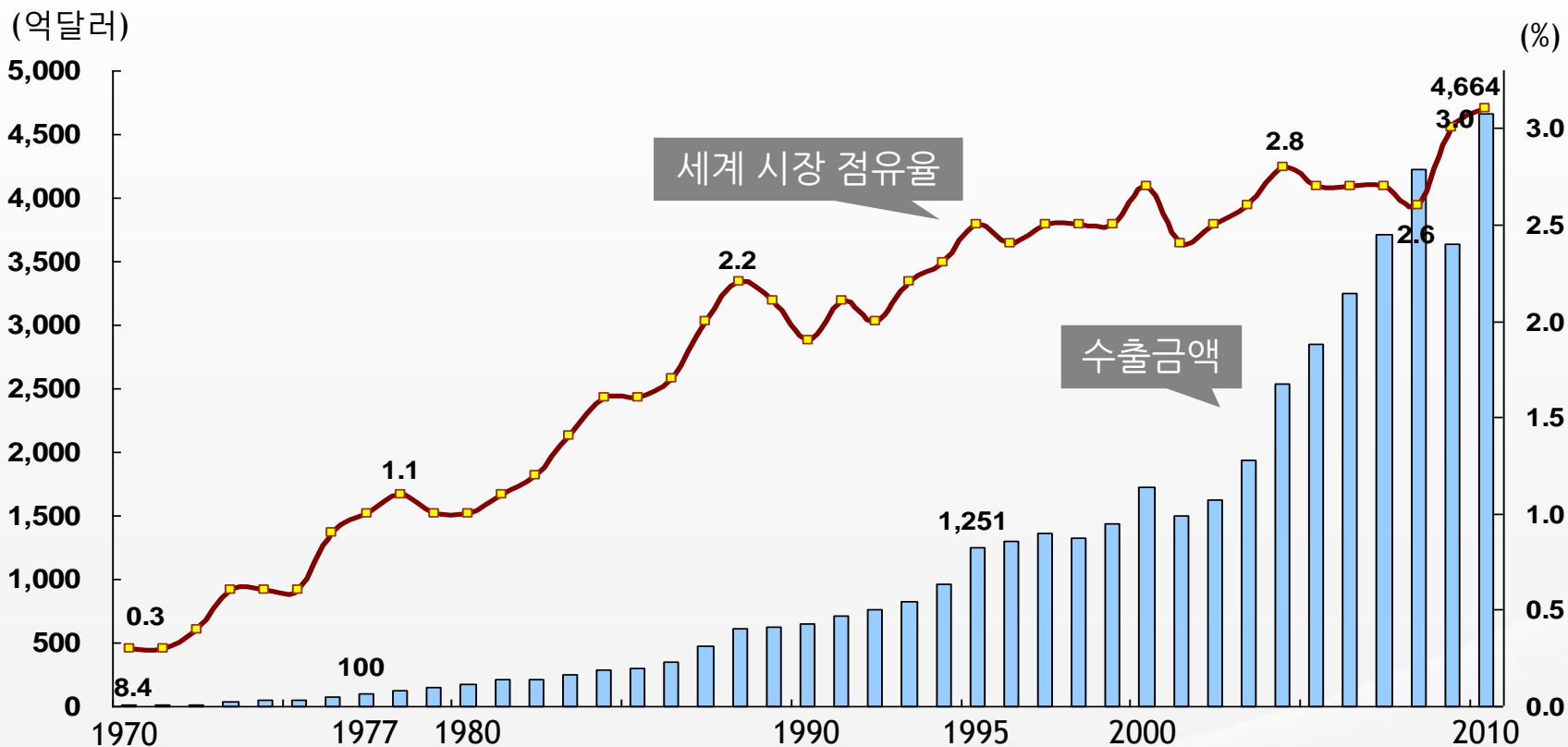
4. 한국 경제의 성장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 1인당 국민소득: 1960년 79달러 → 2007년 21,695달러 → 2010년 20,759달러
 - *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17,000달러대로 하락, 2010년 2만달러대 재진입
- 1인당 소득 순위: 1960년 101위(125개국중) → 2010년 34위




5. 한국 경제의 성장 : 세계 7대 수출국으로 성장

- 수출금액: 1970년 8.4억\$ → 1977년 100억\$ → 2010년 4,664억\$
(연평균 18.9% 증가) → 세계 7대 수출국가로 자리매김
- 세계시장 점유율: 1970년 0.3% → 2010년 3.1%
-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달러 돌파



<참고> 수출규모 국가 순위



 2009년 세계 9위로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2010년 7위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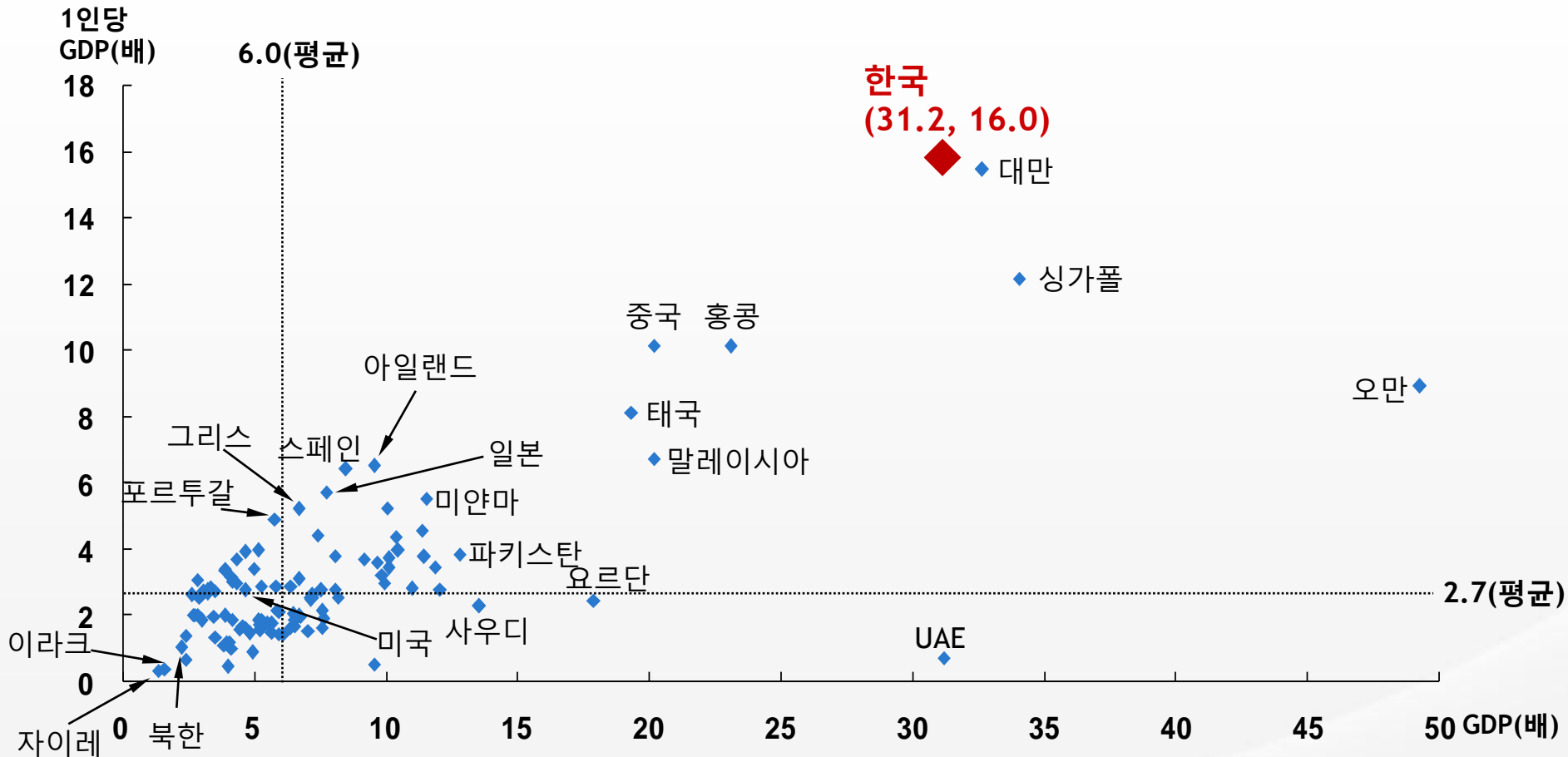
 1950년 이후 수출 10위권에 신규 진입한 국가는 한,중,일 3개국에 불과

세계 수출 순위 (1950-201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9	2010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독일	미국	중국	중국
2	영국	독일	독일	독일	미국	독일	독일	미국
3	캐나다	영국	영국	일본	일본	일본	미국	독일
4	프랑스	프랑스	일본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일본	일본
5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영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6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사우디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7	호주	일본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이탈리아	한국
8	네덜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9	브라질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한국	벨기에
10	이탈리아	스웨덴	스웨덴	벨기에	홍콩	홍콩	영국	영국
	한국(85위)	한국(88위)	한국(43위)	한국(26위)	한국(11위)	한국(12위)	9위	7위

6.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 시현

 GDP : 20억\$ (1960) → 9,309억\$ (2008) → 31.2배 성장(실질 기준)
 1인당소득 : 79\$ (1960) → 19,296\$ (2008) → 16.0배 성장 (실질 기준)



주: 1960년 대비 2008년의 GDP규모 및 1인당GDP. 2008년 실질GDP가 100억달러 이상인 11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함.
 Angus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2010)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참고> 세계적인 고성장 사례와의 비교(1)

스페인(16세기)

- 영토확장과 식민지 개척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마젤란의 세계일주)
- 근대 최초의 식민제국 건설
✓ 캘리포니아·플로리다 등 북미, 멕시코·페루·칠레 등 중남미 전역(브라질 제외), 네덜란드, 필리핀 등

네덜란드(16~17세기)

-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이후 17세기 해양 강국으로 군림
- 식민지들을 교역 및 생산 거점으로 활용
✓ 뉴욕,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남아공, 인도(해안도시), 카리브해 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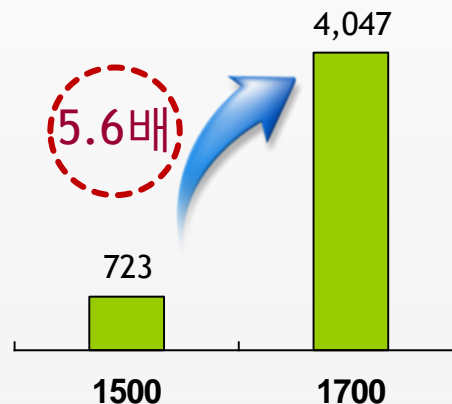
영국(18~19세기)

- 최초로 자본주의 체제 확립, 산업혁명으로 19세기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
- 모든 대륙에 식민지 구축
✓ 미국,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호주,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가나, 탄자니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영연방 53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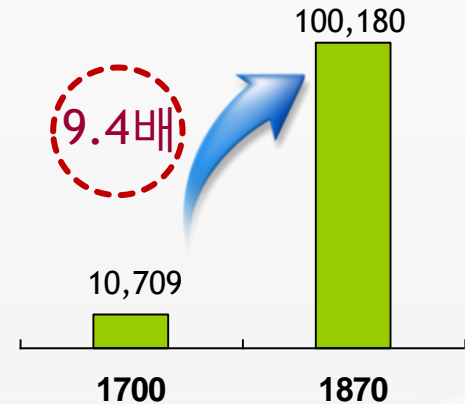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실질 GDP 기준)



세계GDP 1.3배 증가



세계GDP 1.5배 증가



세계GDP 3.0배 증가

주: Angus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2010)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참고> 세계적인 고성장 사례와의 비교(2)

미국(19~20세기)

- 남북전쟁(1861~65)을 통해 연방체제 확립
- 19C 후반 교통의 발달, 인구 유입 등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공업화 진전
- ➔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부상

일본(19~20세기)

-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확립
- ➔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일국가 수립
- 제2차 대전 이후 수출주도 공업화로 비약적 발전

한국(20~21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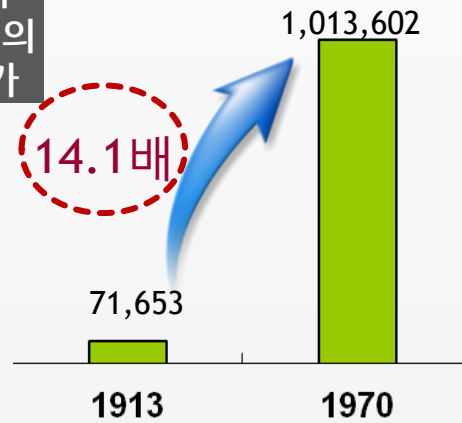
-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 본격적 추진
- 중화학공업·수출산업 육성 등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 ➔ 단기간에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

단위: 백만 달러
(실질 GD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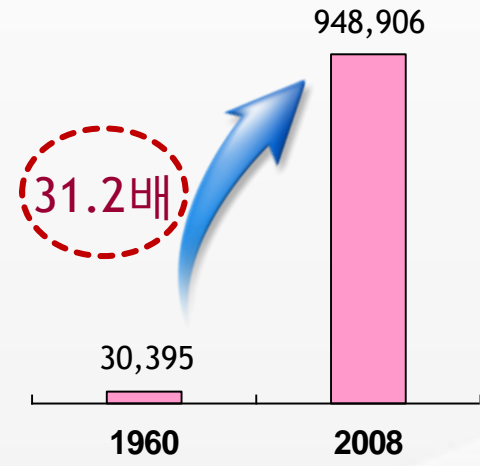


세계GDP 4.1배 증가

제1,2차
세계대전의
중심국가



세계GDP 5.0배 증가



세계GDP 6.0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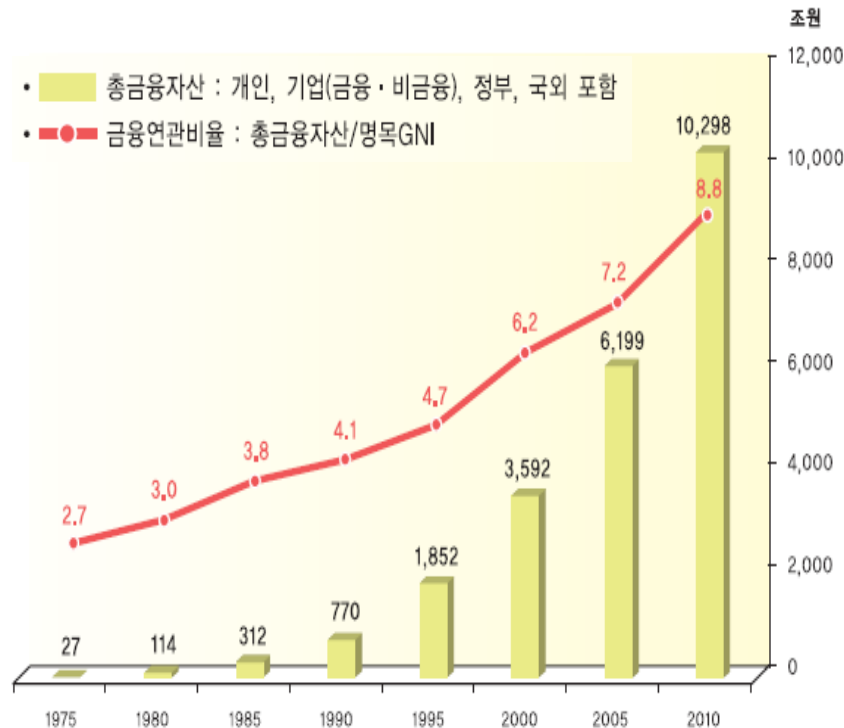
주: Angus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2010)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7. 한국 금융의 성장 : 양적 측면

개인, 기업, 정부의 총 금융자산은
35년간 약 380배 성장(매년 약 18%성장)

* 1975년 27조원에서 2010년 10,298조원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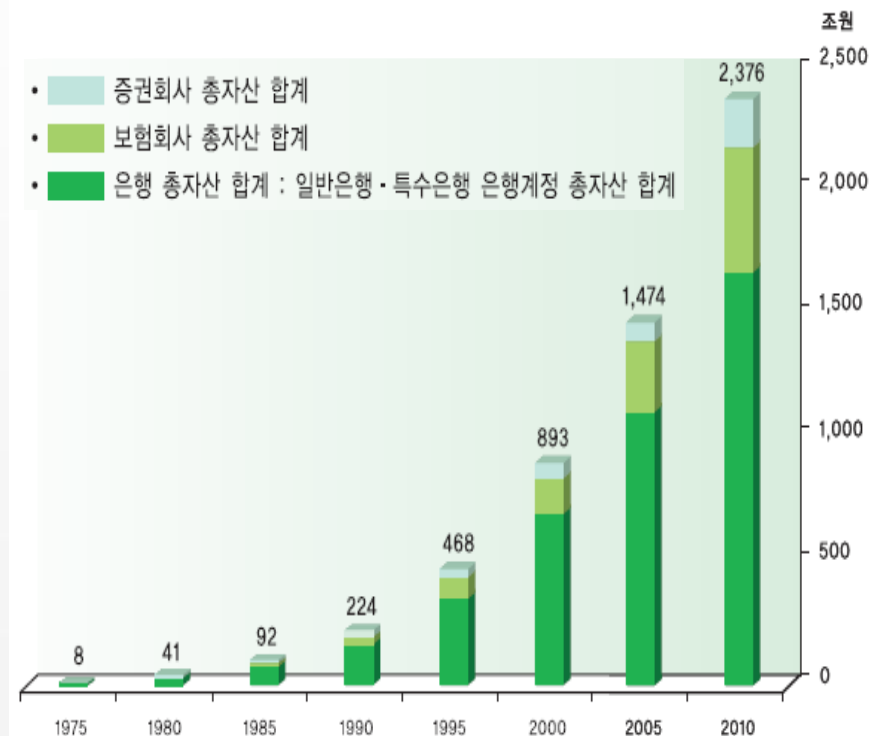
총금융자산(개인·기업·정부·국외) 규모



금융회사의 총 자산은
35년간 약 300배 성장 (매년 약 17%성장)

* 1975년 8조원에서 2010년 2,376조원으로 증가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 총자산 규모



7. 한국 금융의 성장 : 양적 측면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최근 14년간 약 9.8배 성장(매년 약 18%성장)
 * 1996년 117조원에서 2010년 1,142조원으로 증가

외환거래량 규모는
최근 10년간 약 4.5배 성장 (매년 약 16%성장)
 * 2001년 92억달러에서 2010년 419억달러로 증가

주식 · 채권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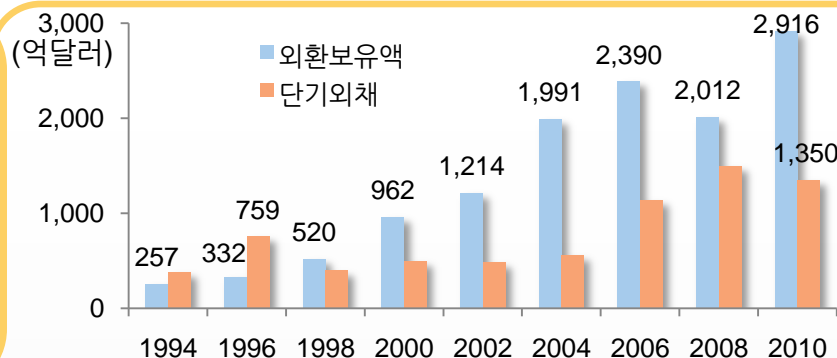


외국인 주식 · 채권 투자규모 / 외환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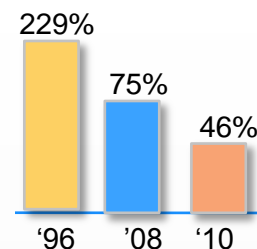


8. 한국 금융의 성장 : 질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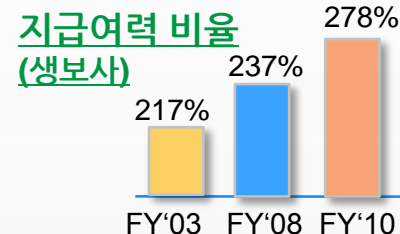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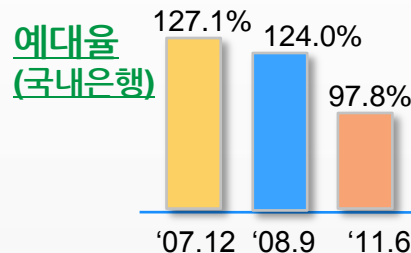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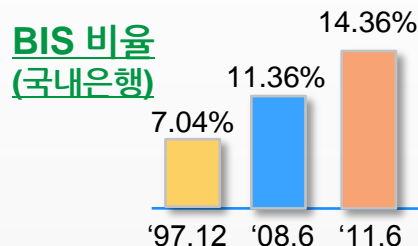
외환건전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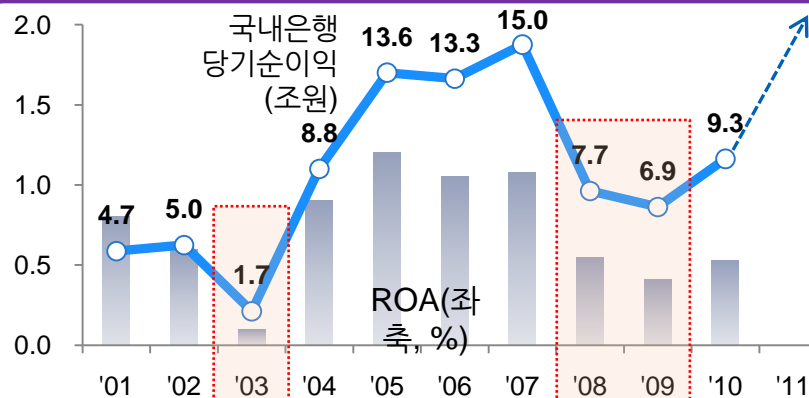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



금융산업 수익성 개선



✓ '11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10.3조원

✓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두 차례 위기시 제외)

9. 한국 금융의 현주소 : 향후 성장잠재력 보유

한국 금융의 위상

신용등급	A (S&P 기준)
외환보유액	8 위
주식시장 시가총액	16 위
주식시장 거래금액	7 위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33.3%

<2010년 우리 경제 위상>

국내총생산(GDP)	15 위
* 10,143억달러	
수출규모	7 위
* 4,664억 달러	
1인당 GDP	34 위
* 20,759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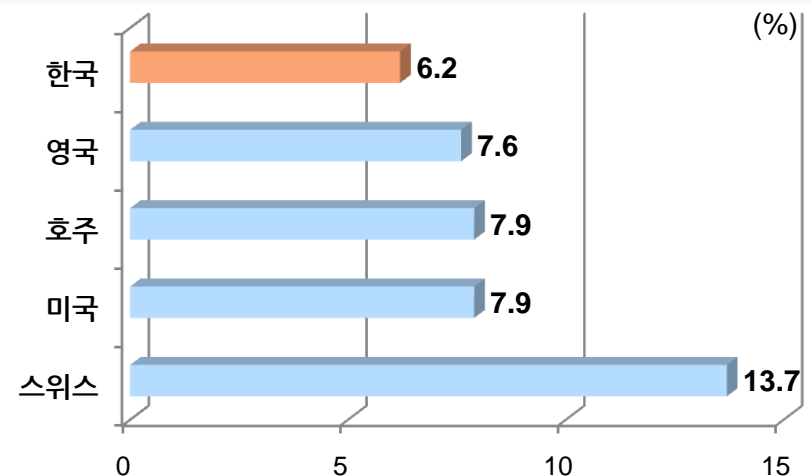
■ 금융의 향후 성장여력은 충분

- 금융연관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음

*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잔액/명목GNI, '09년, 배) :
(한국) 8.9, (미국) 10.2, (일본) 12.9

- GDP 대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아 성장여력은 충분

주요국 금융업부가가치/GDP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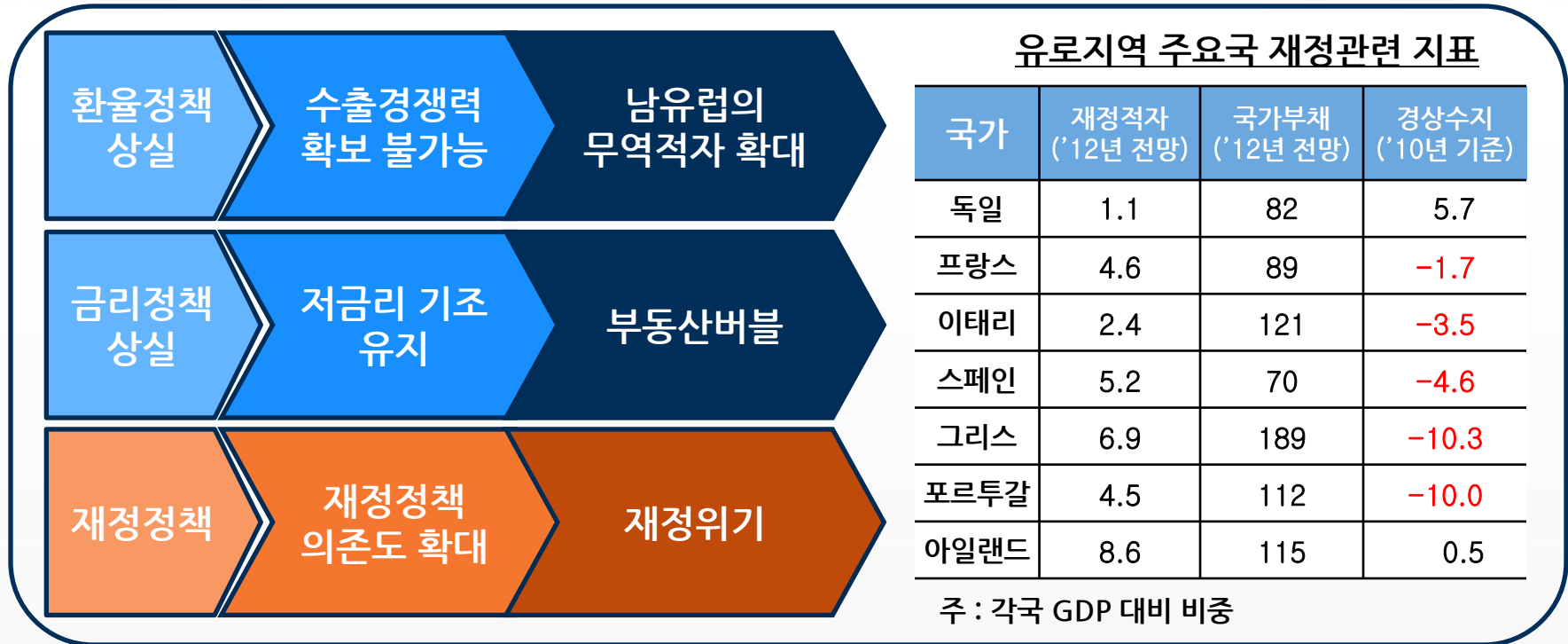




2

대외 금융·경제 여건

1. 유럽 :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증대



- PIIGS국가에 대한 대규모 익스포저로 프랑스, 독일 등 여타 유로존 전체로 위기 확산 가능성
- S&P는 유럽지역 25개 국가와 42개은행의 추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12.14일)

유럽계 은행의 재정취약국 익스포저 (BIS, '11.9월)

(10억유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합계
프랑스	41	20	104	292	457
독일	17	28	127	118	289
영국	11	19	72	49	151
유럽 전체	91	146	454	584	1,275

1. 유럽 : 위기해결의 불확실성 존재

- EU정상은 국가별 과도한 정부부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신재정협약 합의(12.12일)

- 합의내용에 대한 각국별 비준절차로 인해 이행여부가 불투명하고 합의내용이 위기해결에 불충분하다는 시장의 평가

구분	EU 합의사항
신재정협정	- GDP대비 재정적자 3%, 국가부채 60% 초과시 벌금부과 등 강제제재 - 재정건전성 강화 통해 재정통합 추진
구제기금확충	- 내년 7월 5000억€규모 ESM 출범
ECB역할 확립	- 3년 장기대출 도입, 담보요건 완화 등 유동성 확대에 집중

구 분		'08년 금융위기	최근 경제위기
위기 원인		▪ 금융부문 부실	▪ 실물부문 부진 및 유로국 재정위기
정책 대응 여건	국제 공조	▪ 금융안정회복이라는 공통 목표下 강력한 국제공조체제 구축	▪ 각국 여건 상이 및 개별 정책에 따른 이해상충으로 국제공조 어려움
	재정 정책	▪ 확장적 재정정책 가능	▪ 재정건전성 악화로 대응능력 제약
	통화 정책	▪ 적극적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 * 정책금리('08.8말, %) : 美 2.00, 유로 4.25	▪ 추가 금리인하 여력 미미 * 정책금리('11.12월, %) : 美 0.25, 유로 1.00
특징		▪ 단기간에 금융과 실물에 강한 충격 ▪ 재정악화, 과잉유동성 등 부작용 파생	▪ 금융 불확실성 해소와 실물경기 회복에 장기간 소요 예상

2. 미국 : 경제부진 지속 전망

- **(미국)** 최근 일부 경기회복 움직임이 있으나 주택시장 및 고용 회복 부진이 지속

- 11월중 소비자 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은행의 대출 태도 일부 완화

* (11.7월) 59.2 → (9월) 46.4 → (10월) 39.8 → (11월) 56.0

* 주택압류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모기지대출 재융자(refinancing)가 빠르게 증가

- 주택가격과 판매가 모두 고점대비 30%이상 하락한 수준에서 부진한 흐름이 지속

- 통화·재정정책의 운용 제한으로 단기간내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

- 제로금리 수준을 '13년 중반까지 유지할 계획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통제법(8월)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2.1조 달러 감축 계획

미국의 모기지시장 및 주택시장 동향



미국의 고용 동향



3. 중국, 일본 : 성장세 둔화 우려

■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주요 수출국 경기악화로 성장세 둔화 전망

- 부동산 가격이 투기억제대책 등으로 하락세

* '11.10월중 70개 도시중 38개(54.3%)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하락

- 다만, 가계 소득증가 및 수출지역 다변화 등으로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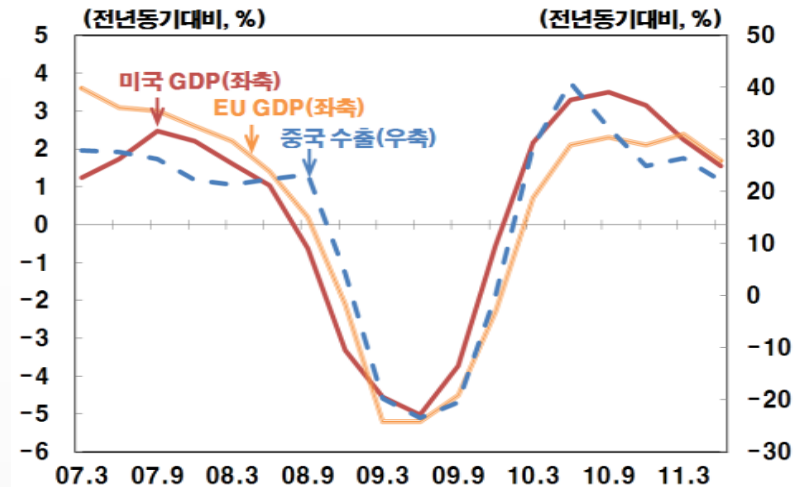
* 중국의 對 선진국 수출 비중(%):
(‘05.1월) 53.8 → (‘11.10월) 43.8

- 3년만에 지급준비율을 인하(0.5%p)하여 경기둔화 대비한 확장적 통화정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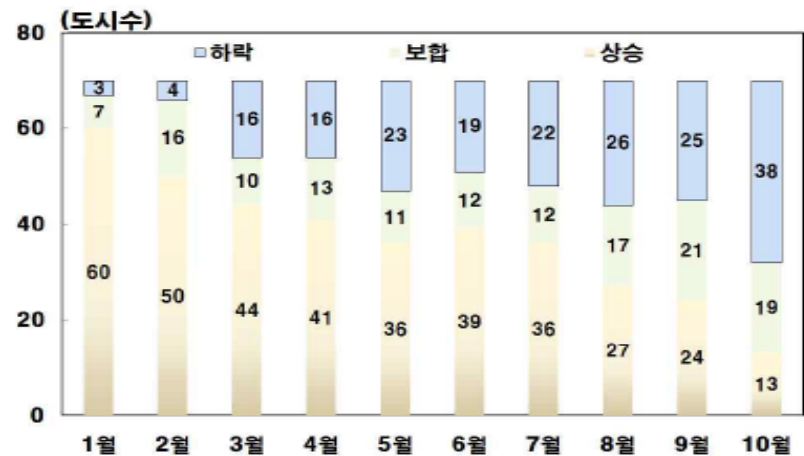
■ (일본) 엔고, 대지진 및 태국홍수 등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부진지속

* '11. 상반기(4~9월) 무역적자는 1.3조엔으로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최대규모 적자 시현

선진국 경기와 중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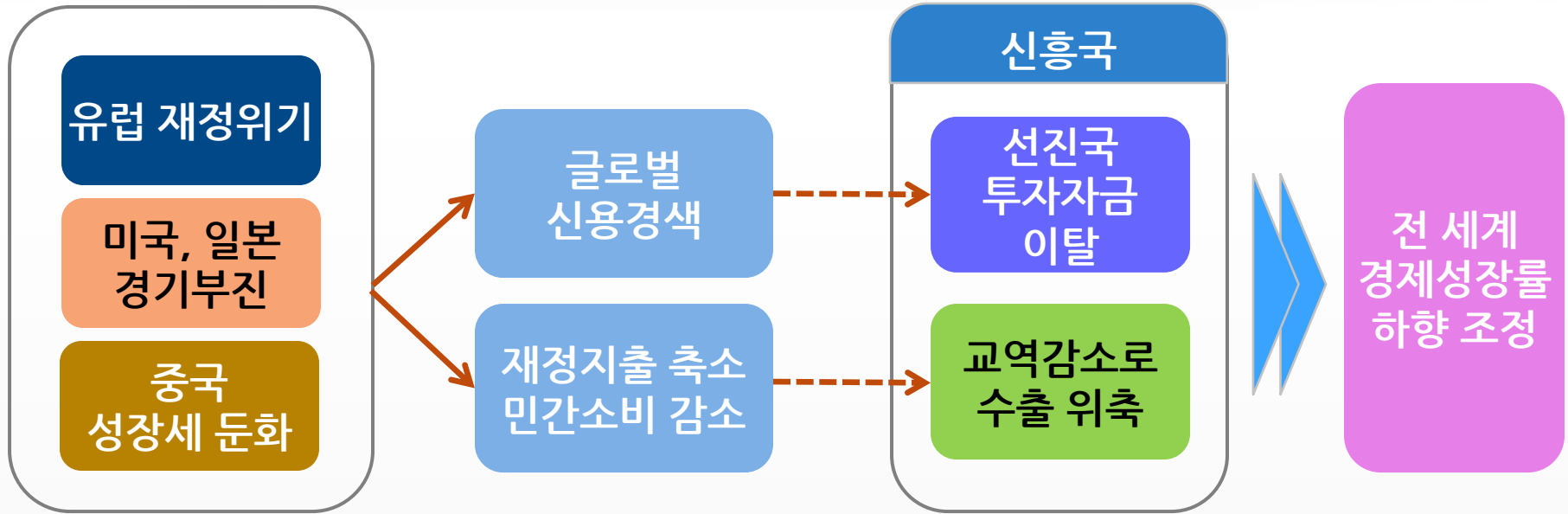


중국의 주택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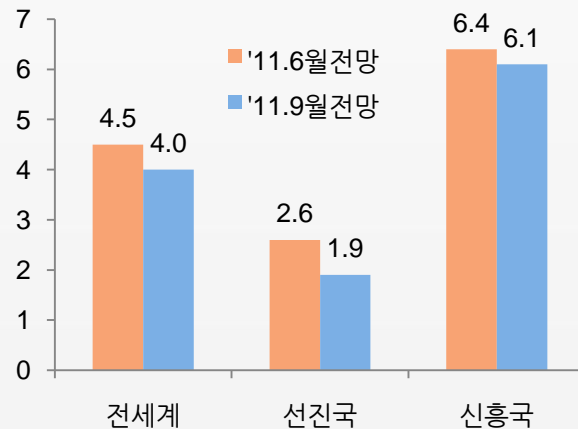
* 주 : 70개 도시 기준주택 기준

4. 세계 경제성장을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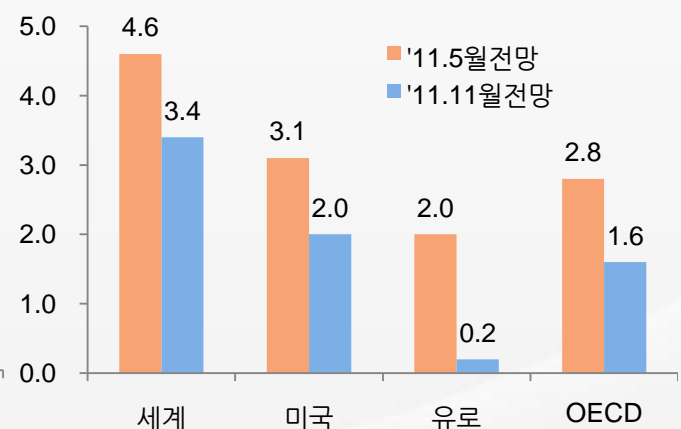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IMF 2012년 전망



OECD 2012년 전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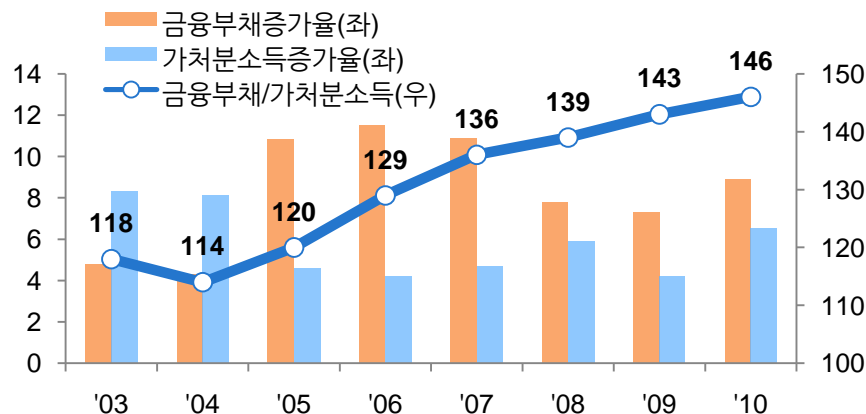
대내 금융·경제 여건

1. 금융시장 잠재불안 요인

가계부채 규모 및 구조적 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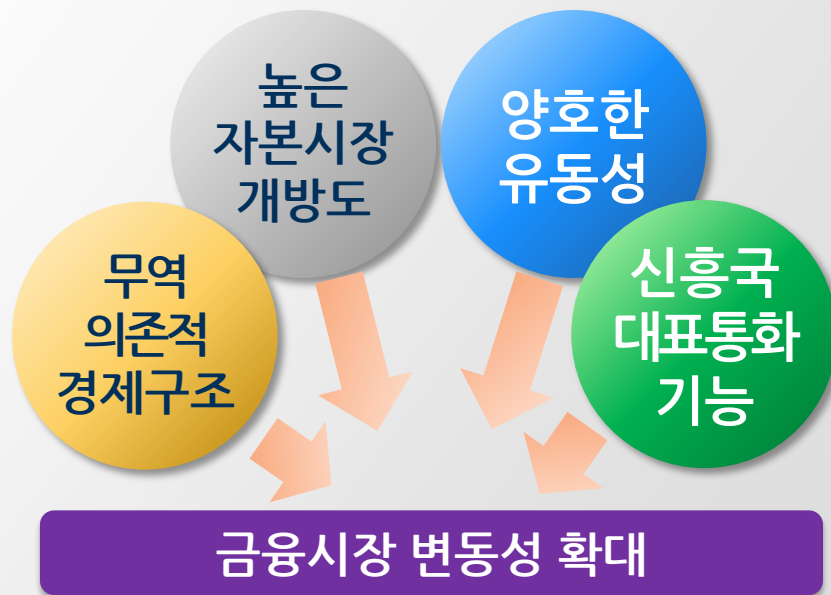
- 가계부채 규모 900조원 육박(9월말 기준)
 - * '99~'10년 연평균 13.0% 증가 (경상GDP 7.3%)
 - 비은행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
 - * '11.1~9월중 증가율: (은행) 4.2%, (비은행) 6.9%
 - ※ 자영업자 대출 100조원 육박(5개 시중은행)
- 높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대출 비중
 - * <변동금리> 한국 93%, 미국 26%, 일본 20%
 - <일시상환> 한국 41%, 미국 10%, EU 8%

가계소득과 부채 추이



대외충격에 민감한 금융시장

- 높은 대외의존도와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충격에 민감
 - 환율 및 주가변동폭은 유럽 재정위기 관련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
 - * 주요국 달러대비 환율 하락률(8~9월중): 한국 -10.8%, 유로 -5.2%, 일본 1.3%



2. 성장동력의 약화

<잠재성장률 하락>

- 90년대 이후 자본, 노동증가율 하락으로 잠재성장률은 4% 초반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

*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KDI, 11.5월) : 4.3% 내외

GDP 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기 간	GDP 성장률	자본 증가율	노동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TFP)
1985~90년	9.2%	11.3%	2.3%	3.8%
2000~05년	4.5%	4.7%	0.0%	2.8%

<고령화>

- 급격한 속도의 고령화 진행중

* 65세 이상 인구비중 전망(% , 통계청) :
(‘10) 11.0 → (‘20) 15.6 → (‘30) 24.3

* ‘10.11월 기준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가
05년 대비 36만명(1.8%) 감소(통계청, 11.6월)

<가계 저축률 하락>

-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 지속

* 가계 저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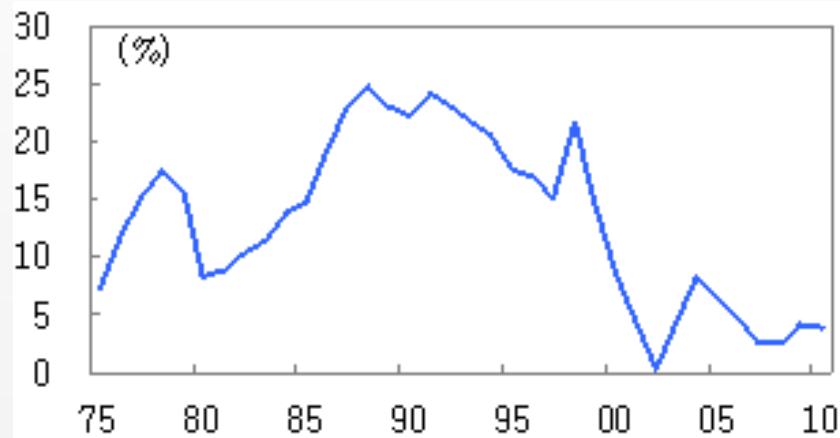
(‘95)17.4%→(‘00)8.6%→(‘10)3.9%

- OECD 평균(5%내외)보다 낮은 수준

* 2010년 주요국 가계 저축률(OECD):

독일 11.3%, 일본 6.2%, 미국 5.3%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개인순저축률 기준

3. 경제의 양극화

기업간 양극화

- 10대 그룹과 여타 상장사간의 격차 확대 추세

* 10대 그룹과 전체 상장사 유보율차이:
(‘07) 50.6→(‘08) 196.9→(‘10) 473.1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도 확대

* 상장사 대기업 중소기업 순이익 격차(조원):
(‘08) 19 →(‘09) 29→(‘10) 39

기업과 가계간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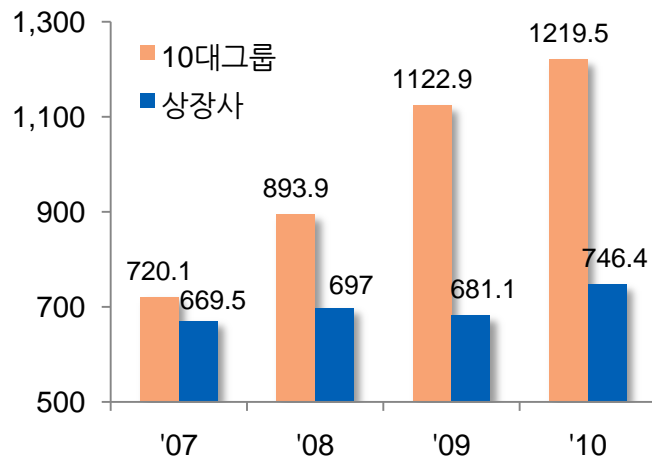
- 가계·기업의 소득증가율 격차 확대 추세

- ‘10년 노동소득분배율(노동소득/국민소득)은
59.2%로 크게 하락

⇒ 가계소득 불균형 확대

* 지니계수: (‘00) 0.279→(‘05) 0.298→(‘10) 0.315

10대그룹 및 상장사 유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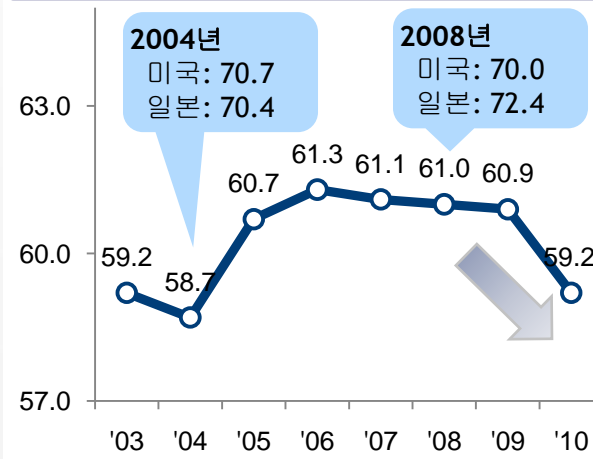


* 유보율=이익잉여금/자본금

가계·기업 소득증가율 비교

기간	국민 총소득	가계	기업
'75~'97	8.9	8.2	8.1
'00~'10	3.4	2.3	16.5
'05~'10	2.8	1.6	19.1
'10	5.5	2.5	26.8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4. 고용 창출 능력 약화

■ 경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감소

- * 1% 경제성장시 창출 일자리수 :
(2000년대 초반) 9만 내외→(후반) 4만 내외

⇒ 신규 취업자수 증가세 감소 추세

* (91~97년) 44.7만명 → (04~08년) 28.8만명

- * 신규취업자 감소 전망:
(‘11) 40만명 → (‘12) 28만명

※ 청년 실업률 확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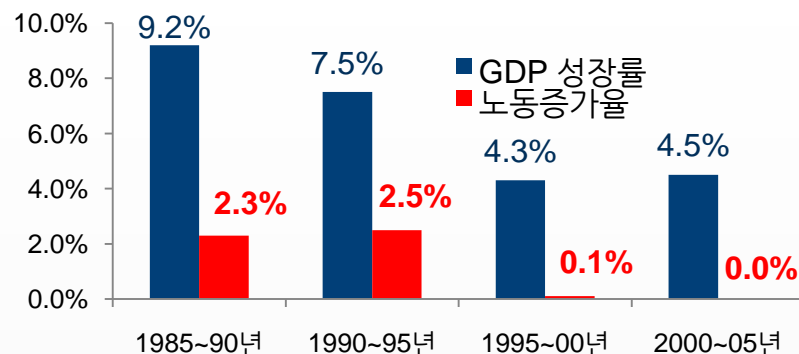
- ‘11.1~9월 중 청년 체감실업률* : 11.3%

* 장기실업자, 구직단념자, 한계근로자,
불완전고용상태 취업자를 실업자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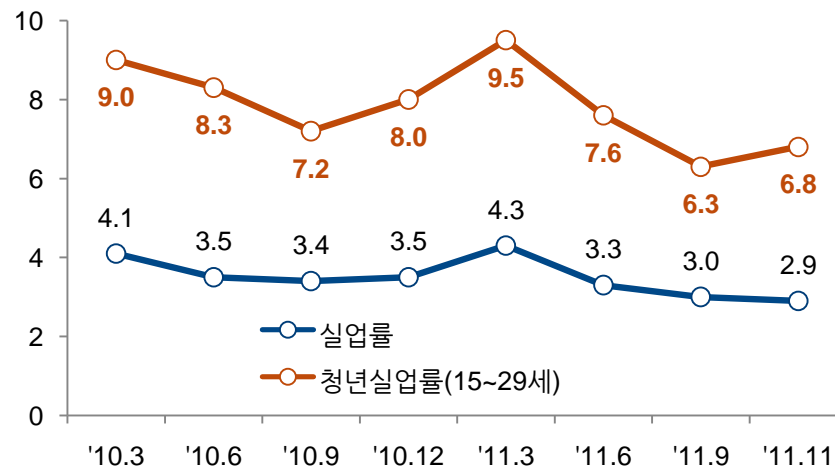
* 신규대졸자 실업률(매년 2월 기준) :
(‘05년) 24.1% → (‘07년) 25.5% → (‘11년) 38.3%

** 신규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비율(매년 2월 기준) :
(‘05년) 39.8% → (‘07년) 34.0% → (‘11년) 42.9%

GDP 성장률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실업률 VS 청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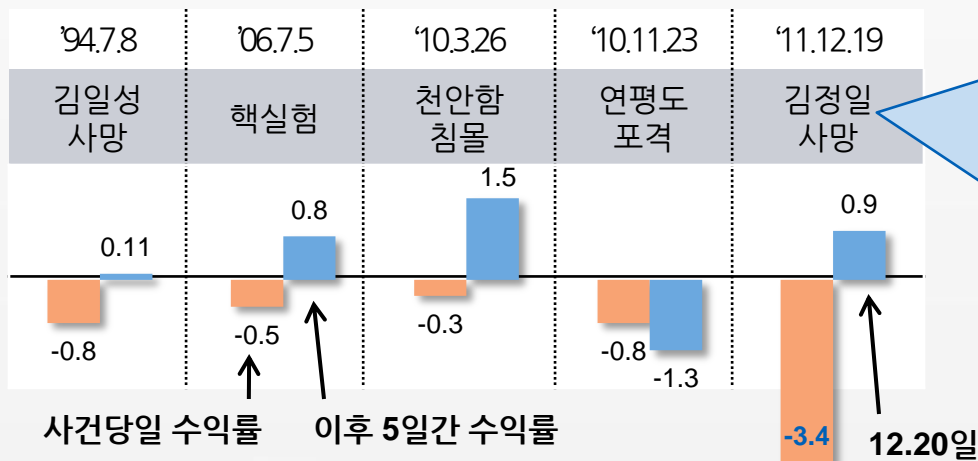


5.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김정일 사망 관련 대내외 반응

- 권력승계 기간동안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WSJ)
 - 명확한 후계구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체제상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
-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간으로 평가

과거 북한리스크 주식시장 반응



대응방안

- ① 『비상금융상황대응팀』 구성
- ② 글로벌 투자은행, 해외사무소, 외은지점 등과 Hot-line 가동
- ③ 중소기업 서민 자금사정 등 실물부문 모니터링 강화
- ④ 비상대응계획 점검 보완

<금융시장 안정 회복>

외국인: 주식 순매도(5,648억), 채권순매수(593억)

* 과거 대외 이벤트 발생당시 주식 순매도보다 낮은 수준
('10.11 옵션만기 1.3조원, '11.8 미 신용등급 강등 1.2조원)

한국 CDS: +9.5bp 상승(20일 현재 168.7bp)

* 아시아 주요국 대비 2~4bp 더 상승한 수준



4

금융정책 추진방향

1.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가계부채 연착륙 기본방향



금융부문 정책대응

- 가계부채 걱정 증가를 위한 관리 강화
- 가계대출 구조개선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서민금융 강화
- 시장상황 등 고려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저축은행 정상화

서민금융기관으로 기능 회복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 구조조정 특별 계정 설치
- KAMCO 구조조정 기금
추가 확보
- IFRS 적용 5년간 유예

대주주 경영진의 엄정한 책임 추궁

-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대주주 리스크 차단
- 대주주 위법행위 처벌강화
- 불법행위자 은닉재산 환수

서민금융을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

- 지역밀착형금융 활성화
- 여신심사능력 확충
- PF이외 대출 다양화

2. 대외환경 변화에 대비한 위기대응

외환 건전성 확보

불필요한
외화차입
억제

- 김치본드 투자 제한('11.7월)
- 여전사 외화차입 축소('11.7월)

외환시장
규제강화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강화('11.8월)
-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10.11월)
- 외화 건전성 부담금 도입('11.8월 시행)

은행권
외환건전성
제고

- 외화유동성 비율 및 중장기 외화자금조달 비율 규제 정비('10.1월, 7월)
-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 등

향후 정책방향

외환 건전성
규제 준수
여부 점검

안정적
외화자금
조달 유도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여건
점검

Stress test
실시 후
취약은행
점검

금융취약 부문 안정성 강화

신용카드

- ✓ 신용카드사 외형확대 걱정 수준 제한
 - 카드자산, 신규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감독지표로 활용하여 걱정 증가 수준 설정
- ✓ 자금조달 규제의 정비
- ✓ 카드대출 총당금 적립 상향 조정

증권사

- ✓ 증권사 신용 제한
 - 콜차입 한도 자기자본 25% 이내로 제한
 - 제 2금융권 단기자금시장은 RP, CP 유도

상호금융

- ✓ 여신 건전성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 강화
- ✓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 강화

3. 금융산업 발전 : 자본시장 제도개혁

종합적인 기업금융 역량 강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 가능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도입

유통시장 경쟁촉진 및 효율성 제고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11년말 12개 상품의 인가를 통해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인수주선 증권사의 책임강화 및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규제 확대

불공정 거래 공시 규제 실효성 제고

세계적인
수준의
자본시장

4. 금융산업 발전 :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전면 재정립

 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쉼과정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 구축(입법 예고중)

주요 내용

판매행위 규제

- ✓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 규정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구속성상품계약체결 금지, 광고 규제 등

제재 강화

- ✓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
 - *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 이익의 3배 범위에서 부과

분쟁조정제도 개선

- ✓ 소송중지제도 도입, 소액사건 소송제기 금지 등을 통해 소비자 구제 실효성 제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 ✓ 금감원내 準독립기구로 설치
- ✓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 강화

5. 금융산업 발전 :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선진화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기능 강화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명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참여 금지
-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 CEO승계,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공시

위험관리 및 보수체계 개선

-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책임자(CRO) 도입 등을 통해 위험관리 강화
- 성과보상 이연지급 등 보수원칙 근거 마련, 보수위원회 설치 및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대주주 적격성 규율

- 대주주 변경 승인 및 주기적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에 대한 규제 차이 해소
(은행·저축은행 → 전업권으로 확대)

6. 실물경제 지원 :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 가능성

* 국내은행 중기대출 연체율 :
(‘08.12) 1.7%→(‘09.12) 1.1%→
(‘10.12) 1.3% →(‘11.10) 1.8%

가계부채 상환능력 제고,
청년 실업률 개선 등을 위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

* 가계부채 및 소득증가율(‘10~‘11.6):
(부채) 12.5% ↑ (소득) 5.5% ↑

* 청년실업률(15~29세기준): 6.8%

중소기업 금융환경 실태파악

- ✓ 현장방문 및 중소기업 관련단체
- ✓ 중소기업 금융수요자
- ✓ 금융회사 중소기업 담당자

중소기업 금융공급 시스템 점검

정책금융
공사, 산은,
기은 등

신보, 기보,
지역신보
등

은행,
제2 금융권

신용평가사
코스닥시장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마련

◆ 한국 경제의 미래 ◆

금융강국 · 경제강국으로의 도약

미래 한국 금융

신뢰받는 금융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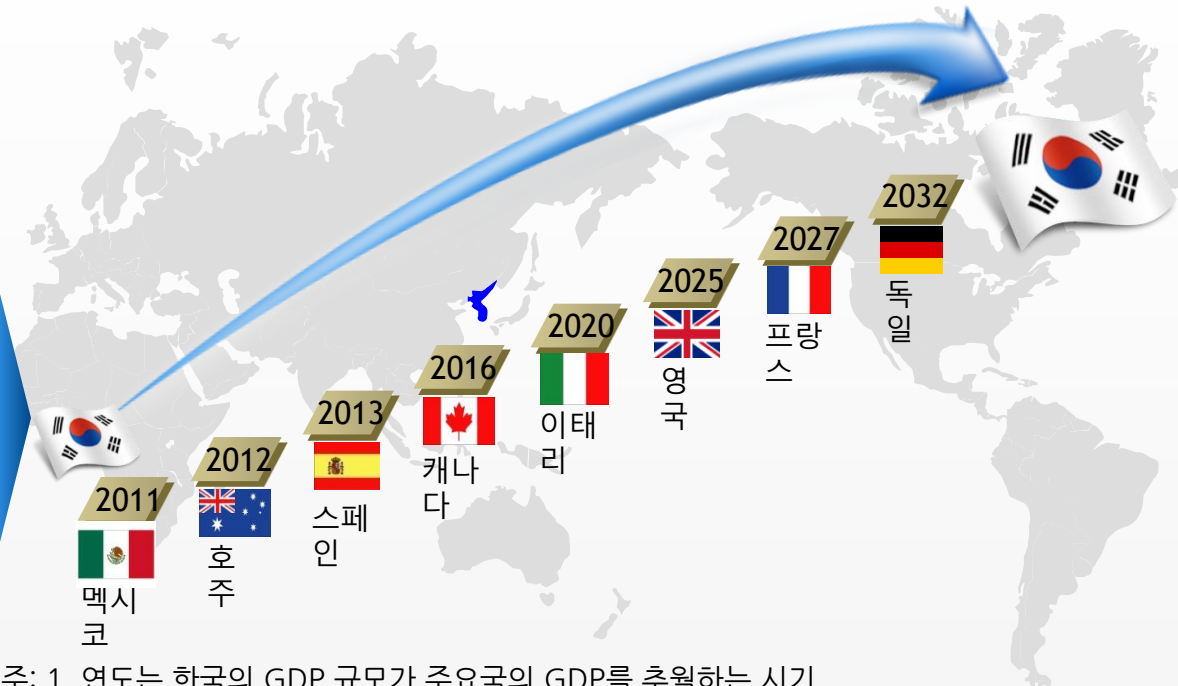
투명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금융시장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강화된 금융시스템
안정성

2030년대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진입



- 주: 1. 연도는 한국의 GDP 규모가 주요국의 GDP를 추월하는 시기
2. 2011~2032년 한국경제 연평균 성장률은 3.3%, 연평균 물가(디플레이터)상승률은 1.9%, 환율은 800원까지 절상되는 것으로 가정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0); Goldman Sachs, *The Long-Term Outlook for the BRICs and N-11 Post Crisis* (2009); *How Solid are the BRICs?* (2005),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25* (2008) 등 참조